

Records and Utilization of Jeongseon Arirang and the Jeongseon Arirang Festival : An Archival-Based Model for Sustainable Transmission

Jin, Yong-seon

First Author, Director, Jeongseon Arirang Research Institute
arari63@naver.com

Yoo, Choon-dong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echaek@hanmail.net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trace the century-long evolution of Jeongseon Arirang and the Jeongseon Arirang Festival by analyzing their formation, dissemin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through a “recording-archiving-utilization” framework. The objective is to clarify how historical documentation and archival practices support sustainable cultural transmission.

Methods Using a chronological and archive-centered method, the study examines print records, songbooks, audiovisual materials, public documents, and digital resources. It classifies record groups, establishes collection and metadata standards, and proposes OAIS-based interoperable archival models, including both independent and relational systems.

Conclusions The findings show that sustainable transmission of Jeongseon Arirang requires four interlinked elements: comprehensive documentation, standardized archiving, community participation,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The study also highlights emerging challenges of copyright, provenance, and long-term preservation in the era of generative AI.

Keywords Jeongseon Arirang, Archival Studi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ultural Transmission, Digital Archives, OAIS Model

<https://www.ijkculture.com>, DOI: doi.org/10.23159/IJKC.2025.12.312.005

Received: Nov. 20. 2025 ; Reviewed: Dec. 10. 2025 ; Accepted: Dec. 20. 2025

pISSN 2951-2808 eISSN 2951-2883

<정선아리랑>과 정선아리랑제의 기록과 활용 : 아카이빙 기반의 지속가능 전승 모델 연구

진용선 / 유춘동

목 차

1. 서론
2. <정선아리랑>의 역사
3. <정선아리랑>과 <정선아리랑제>의 기록: 분류와 현황
4. <정선아리랑>의 기록물 관리와 아카이브 구축
5. 결론

1. 서론

<정선아리랑>은 한국 민요의 전통 속에서도 독자적 위상을 차지한다. ‘아리랑’이라는 공통된 이름 아래 수많은 지역적 변이들이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정선아리랑>은 지방적 특수성, 예술적 완결성, 서사적 깊이가 조화롭게 집약된 유형으로 평가된다. 이것은 단순히 한 지역의 소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아내며, 국가적·세계적 문화유산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지닌 노래이다.

20세기 초 근대 매체의 등장과 함께 <정선아리랑>은 문헌, 음반,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역 공동체 내부의 구전 전통에서 벗어나 공공 기억(public memory)의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특히 1930년대에 간행된 『조선』, 『별건곤』, 『동아일보』 등에 실린 <정선아리랑> 가사의 소개는 민속 현장의 노래가 기록을 통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관심의 대상으로 전환된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 1971년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 지정과 1976년 제1회 정선아리랑제의 개최는

〈정선아리랑〉이 단순한 생활 속 노래에서, 보존과 전승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문화재로 자리매김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제도화 과정에서 생산된 공문서, 기획서, 음반, 영상 등의 자료는 단순한 부수적 산물이 아니라, 〈정선아리랑〉의 현대적 정체성을 형성한 기록유산으로 기능하였다.

2012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는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금 입증한 사건이었다. 등재 과정에서 제시된 문헌, 사진, 언론보도 등은 단순한 자료 제시를 넘어, 〈정선아리랑〉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입증하는 증거 기반이 되었다. 이로써 기록은 보존의 수단을 넘어 문화정책과 문화외교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선아리랑〉과 정선아리랑제가 남긴 기록을 중심으로, 〈정선아리랑〉의 역사적 전개와 기록 행위 및 상호 작용, 축제를 통한 기록의 생산, 관리, 활용 구조, 지속가능한 전승을 위한 아카이브 표준과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세 가지 문제의식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서 〈정선아리랑〉 관련 문헌, 음반, 영상, 사진, 공공기록, 디지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합성-신뢰성-연관성-활용성을 기준으로 기록군을 분류하였다.

또한 정선아리랑제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기록물이 어떻게 축적되고 활용되는지를 추적함으로써, 기록이 단순한 보존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 기억을 재구성하는 문화적 자원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세 가지 이론적 틀로, 무형유산의 ‘실천-매개-기록’ 구조, 기록학의 OAIS(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 모델, 그리고 문화정책 분석의 관점-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정선아리랑〉은 공동체의 실천이 축제와 공연 등의 매개 과정을 거쳐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이 다시 정책과 문화 자원으로 재순환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이것은 무형유산의 전승이 실천과 기록, 제도와 정책이 맞물린 복합적 문화 시스템임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정선아리랑〉의 기록을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공동체 기억과 문화정체성을 재생산하는 지식 인프라로 재위치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무형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전승과 지역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적, 실천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이다.

2. <정선아리랑>의 역사

먼저 <정선아리랑>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본다. 이 일은 단순히 한 지역의 민요사를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 아리랑 전통 전체의 형성과 확산, 그리고 근대 이후 민요의 제도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¹

<정선아리랑>은 조선후기의 민중적 삶의 정서를 담은 향토 민요로 출발했으나, 20세기 초 근대매체의 등장, 1970년대 문화재 지정, 2000년대 이후 국제적 확산에 이르기까지 약 150여 년에 걸쳐, ‘구전-기록-제도-세계화’의 연속적 변모를 경험해왔다. 따라서 그 역사를 고찰하는 것은 한 노래의 변천사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무형문화유산의 구조적 변화와 전승 메커니즘을 탐구하는 일과도 직결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인식 아래 <정선아리랑>의 역사적 전개를 다섯 단계, “여명기(조선후기~1950년대), 도약기(1960~70년대), 침체기(1980년대), 정착기(1990년대), 발전기(2000년대 이후)”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2.1. 여명기(조선후기-1950년대)

<정선아리랑>의 기원은 조선 후기 민중의 삶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정선 지역의 농경 사회에서는 계절의 변화, 망향의 정서, 삶과 죽음의 순환이 노래 속에 투영되었고, 그 결과 긴아라리와 엮음아라리라는 두 가지 주요 형식이 공존하였다. 이러한 구비 전승은 오랫동안 지역 공동체의 구술 문화 안에서 전승되었으나, 20세기 초 근대 대중매체의 등장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1926년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 개봉은 민속적 노래가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결정적 계기였다. 이 영화는 전국적인 ‘아리랑 열풍’을 불러일으켜 다양한 지역의 아리랑이 채록되었고 이 과정에서 변형이 되기도 하였다.² <정선아리랑> 역시 그 흐름 속에서 기록의 대상으로 편입되었다.

1930년 『조선』 제125호에 실린 38수의 <정선아리랑> 가사³, 1933년 『별건곤』에 수록된

1 1968년 『정선아리랑』(연구한 편, 문화인쇄사) 발간 이후 정선군에서 발행한 대부분의 문헌에는 정선아리랑의 기원을 고려 멸망 시기인 6백여 년 전부터 불리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정선아리랑이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 한 것은 구한말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진용선. (2011). 정선아리랑의 전승과 계보.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 신유행 괴유행-귀 아픈 아리랑 타령. (1928). 별건곤, 12월호, 151. 개벽사.

〈정선아리랑〉 6수, 1937년 『동아일보』에 등장한 〈정선어러리〉 24수는 전승 현장의 노래가 근대 매체를 통해 활자화된 대표적 사례였다.⁴ 이는 단순한 민속 채록이 아니라, 지역의 구비 전승이 공적 기록체계로 이동하며 ‘공공의 텍스트’로 재편집된 과정을 보여준다.

1950년대 6·25 전쟁 이후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민요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서울권에서는 대중가수들이 〈정선아리랑〉을 변용해 통속민요 형태로 보급하였고, 이 과정에서 ‘아리랑’은 대중음악의 한 장르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통속화는 원형 전승에 일정한 위협을 주었으나, 정선 지역에서는 긴아라리와 엮음아라리 중심의 토속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었다. 특히 1955년에 정선교육구에서 발간한 『정선민요집: 〈정선아리랑〉』은 가사를 산수, 계절, 인생, 금수, 망향, 근면 등의 주제별로 분류하여 학술적이면서도 교육적인 가치를 부여했다.⁵ 이 시기의 〈정선아리랑〉은 ‘지역적 구비전승-대중문화 확산-문헌 기록화’라는 삼중 구조 속에서 새로운 위상을 형성하였다.

2.2. 도약기(1960-1970년대)

1960~70년대는 〈정선아리랑〉이 지역적 민요의 범주를 넘어 제도화된 무형문화유산으로 도약한 시기였다. 1950년대 이후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농촌의 생활문화가 급격히 변모하였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선 지역은 고유한 민속 문화를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전승운동을 전개하였다.

정선군은 민요경연대회를 정례화하여 소리꾼을 발굴하고, 세대 간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 단위 전승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마을과 학교, 문화단체를 중심으로 가사 발굴과 녹음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는 가사집 출간이 이어지면서 〈정선아리랑〉의 원형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었다.⁶ 이 시기는 〈정선아리랑〉이 구전의

3 조선(朝鮮)』 152호(1930년 6월)에 12수, 153호(1930년 7월)에 26수가 실려 있다. 후렴부는 19수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아리랑 고개로 두리님세(돌이님세)”이며, 1수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아리랑 고개로 넘어가세”이다.

4 정선군. (2007). 정선아리랑의 전승실태 조사보고서.

5 정선 최초의 정선아리랑 가사집으로 『旌善民謠集』이라는 제목에 「정선아리랑」이라는 부제를 단 17쪽의 프린트 본이다. 손계주(孫繼周) 교육구장의 서(序)와 4페이지에 이르는 엮은이의 ‘소개’의 글이 수록되어 있으나 엮은이가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다. 이 책에는 정선아리랑의 대표적인 가사 24수(엮음아리랑 5수 포함)를 해설과 함께 연애편, 산수편, 계절편, 인생편, 금수편, 망향편, 근면편으로 분류해 실고 있다. 이 책은 1950년대 당시 정선아리랑의 유일한 기록본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1960년대 초반 정선군에서는 정선아리랑 가사 수집 작업을 본격화했다.(46판변형, 가로 13.8cm × 세로 19cm)

차원을 넘어 ‘기록과 제도’라는 새로운 틀 안에서 보존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1971년 <정선아리랑>이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사건은, 민요가 단순한 생활의 산물을 넘어 국가적 보호와 관리의 대상으로 격상된 상징적 전환점이었다. 이는 지역민의 자발적 전승 활동이 도의 문화정책과 맞물리며 공적 제도로 흡수된 결과였다. 지정된 이후에, 정선군과 강원도는 <정선아리랑>의 전승자 관리, 공연 지원, 기록 정비를 제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은 아리랑의 전승을 개인의 기억이 아닌 공동체의 책임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 초에는 <정선아리랑>을 수록한 LP음반이 제작되어, 전통민요가 대중매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⁷ 음반은 단순한 향토음악의 기록을 넘어, 구비전승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 청취가 가능한 ‘보존 매체’로 기능했다. 또한 1974년에는 종묘제례악 예능보유자인 김천홍이 <정선아리랑>의 가락과 율동을 바탕으로 무보(舞譜)를 정립함으로써, 노래가 단순한 음성예술을 넘어 종합 공연예술의 형태로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선아리랑>은 단순히 불리는 노래가 아니라, ‘보고 들을 수 있는 문화자산’으로 재탄생하였다.

1976년 제1회 ‘정선아리랑제’의 개최는 이러한 제도화의 결실이자, 지역민의 문화적 자부심이 공적 축제 형식으로 표출된 사건이었다.⁸ 축제는 단순히 공연의 장이 아니라, 지역민이 공동체의 기억과 정체성을 재현하고 기념하는 상징적 무대였다. 이듬해인 1977년에는 정선 비봉산에 ‘<정선아리랑>비’가 세워져, 노래가 역사적 기념물의 형태로 시각화되었다. 비문 제막은 ‘기념물-축제-교육’의 삼각 구도를 완성시키며, <정선아리랑>이 하나의 문화체계로 정착했음을 의미했다. 같은 해 진행된 학술조사는 <정선아리랑>의 예술적, 민속학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고, 학문적 연구를 통한 근거 축적이 이후의 정책적 보호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1978년 선명회합창단이 세계합창경연대회에서 <정선아리랑>을 공연하여 수상함으로써, 이 노래는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 진출한 지역민요로 기록되었다. 이는 <정선아리랑>

6 진용선. (2011). 정선아리랑의 전승과 계보. 정선아리랑문화재단.

7 1970년 9월 1일 초판이 나왔으며, 1971년 8월 1일에 재판판을 제작했다. 초판 앨범 재킷 뒷면에는 12수의 정선아리랑 가사와 유은재 정선군수의 증정의 글(1970년 6월 20일자)과 정선아리랑 악보가 있고, 재판에는 정선군수의 증정의 글이 빠지고 7수(엮음1수 포함)가 추가되어 19수의 정선아리랑 가사가 실렸다. 음반 레이블도 초판과 재판에는 차이가 있다.

8 정선군. (1986). 정선아리랑제 10년.

이 단지 ‘지방의 민요’가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적 상징으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정선아리랑>은 전승(傳承), 교육(教育), 기념(記念), 확산(擴散)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제도적 정립기’로 진입하였다.

2.3. 침체기(1980년대)

1980년대는 <정선아리랑>이 제도적으로는 기반을 갖추었으나, 대중적 관심이 점차 약화된 시기였다. 1970년대에 정립된 무형문화재 지정, 축제 개최, 비문 제막 등의 제도적 성과는 일정한 전승 체계를 마련했지만, 사회 전반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역민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당시 대중문화의 중심은 텔레비전과 영화, 대중가요로 이동하였고, 전통 민요는 일상 속에서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선아리랑>은 ‘지역문화의 상징’으로 남았지만, 그 상징이 적극적으로 소비되거나 재생산되는 통로는 점점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계에서는 <정선아리랑>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극단 혼성이 제작한 연극 「아리랑 정선」(1981)은 정선의 민요적 정서를 무대 언어로 옮겨낸 작품으로, 전국 순회공연을 통해 일정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⁹ 또한 KBS 드라마 「아리랑별곡」(1984)은 민요의 정서를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를 통해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한 대중문화적 실험이었다. 이처럼 공연과 영상의 형태로 <정선아리랑>을 재현하려는 노력은 이어졌으나, 제도적 관리 체계와 기록화 작업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정선아리랑제’ 역시 이 시기에 일정한 정체기를 겪었다. 축제 운영 예산의 한계와 조직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행사 규모가 축소되었고, 그 결과 행사 관련 자료의 생산과 기록 관리 또한 감소하였다.

음반 제작이나 학술 조사 등 체계적인 자료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축제가 남긴 기록은 단편적이고 비연속적인 형태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선아리랑>이 한때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1970년대의 활력을 유지하지 못한 채, 제도적 안정 속의 정체기를 맞이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 시기의 침체는 단순한 후퇴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지역민과 전승자들 사이에

9 극단 혼성. (1982년 10월 16일). 경향신문, 5면;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1). 사진으로 읽는 정선아리랑.

서는 오히려 ‘이대로 사라질 수는 없다’는 문제의식이 형성되었고, 이는 이후 전승 체계 재정비의 촉진제가 되었다. 축제의 기록이 줄어들고 연구가 정체된 현실은 오히려 아리랑의 전승이 단순한 행정 지원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음을 일깨워 주었으며, 민요 전승의 기반이 공동체 내부의 자발적 참여와 기록의 체계적 관리에 달려 있음을 자각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는 외형적으로는 <정선아리랑>의 ‘잠복기’였으나, 내면적으로는 이후 1990년대의 부흥기를 준비하게 한 전환의 준비기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조용한 침잠은 오히려 전승과 아카이빙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게 하였으며, 결국 1990년대 이후 연구소 설립, 전수회 결성, 전승학교 개교 등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전승기반 구축’의 출발점이 되었다.

2.4. 정착기(1990년대)

1990년대는 <정선아리랑> 전승 체계가 본격적으로 정착된 시기였다. 1980년대의 침체기를 거치며 전승의 필요성이 절실히 인식된 가운데, 정선 지역은 민요의 체계적 보존과 연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1991년에 <정선아리랑>연구소의 창립은 그 중심적인 출발점이었다. 연구소에서는 <정선아리랑>의 역사와 변이형, 가사와 선율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을 전담하며, 구비 전승 중심의 전통을 학술적 연구의 체계 안으로 편입시켰다.

이어서 1992년에는 지역 소리꾼과 전승자들이 중심이 되어 ‘사랑방전수회’가 결성되었다. 이 모임은 세대 간 전승의 매개 공간으로, 소리의 본형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연행 방식을 실험하는 전통과 현대의 점점 역할을 했다.

1993년에는 <정선아리랑>학교가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아리랑을 단순히 공연예술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정선의 역사·민속·언어와 함께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었다. 이를 통해서 <정선아리랑>은 지역 공동체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습되고, 청소년 세대에 문학적 정체성을 전승하는 교육 모델로 발전하였다.

1995년에 <정선아리랑>보존회의 창립은 전승 조직의 제도적 완성을 의미했다. 보존회는 연구, 교육, 축제 운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승 체계의 안정성을 높였으며,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공연, 기념행사, 기록 정비를 병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기관 설립은 <정선아리랑> 전승의 주체가 개인에서 조직으로, 그리고 지역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는 전환점이었다.

이 시기에는 교육의 영역에서 특히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정선문화원과 교육청은 <정선

아리랑〉을 전수학교 및 지역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학생들에게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 수업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단순한 음악 실기 교육을 넘어,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인문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로써 〈정선아리랑〉은 ‘노래하는 지역문화 교과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민요 전승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문화로 제도화되었다.¹⁰ 이 과정에서 노년층 전승자와 청소년 학습자 간의 교류는 세대 간 연대를 형성하고, 공동체 내부의 문화적 자긍심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1990년대는 국제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했다. 일본 호소다고등학교를 비롯한 해외 체험학습단의 방문은 〈정선아리랑〉이 외국인 관광객과 학생들에게 지역 문화체험의 주요 콘텐츠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¹¹ 이러한 교류 활동은 아리랑이 지역의 문화자산을 넘어, ‘한국 전통의 대표 상징’으로 세계에 소개되는 통로로 작용했다. 국제학술대회와 자매결연 행사에서도 〈정선아리랑〉 공연이 포함되면서, 전통 민요가 문화외교의 한 축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한편, 전승 활동과 병행하여 기록의 축적과 학문적 정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전수조사와 구술사 채록은 전승자들의 생애와 경험, 가창 방식, 전승 계보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했으며, 정선 뗏목 재연행사 등 민속 재현은 노래가 불렸던 역사적 공간과 맥락을 복원하는 역할을 했다. 이와 함께 자료집 발간, 학술행사 개최, 연구논문 발표가 이어지며, 〈정선아리랑〉은 단순한 향토축제를 넘어 학문적·교육적 기반을 갖춘 전승 체제로 확립되었다.

이 시기의 정선은 노래와 기록, 교육과 연구, 축제와 교류가 긴밀히 맞물린 복합문화 전승 모델을 실현하였고, 이는 이후 2000년대 유네스코 등재의 밑거름이 되었다. 즉, 1990년대는 〈정선아리랑〉이 자생적 전승체계와 제도적 교육, 그리고 국제적 교류의 세 축을 기반으로 정착한 시기였다. 이 시기의 성취는 단순히 전통의 보존에 머무르지 않고, 전승이 생활문화로, 그리고 지역의 문화자본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2.5. 발전기(200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 〈정선아리랑〉은 공연, 교육, 연구, 국제교류 등 모든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1980~90년대를 거치며 제도적 기반을 확립한 정선 지역은, 새 세기로

¹⁰ 진용선. (2011). 정선아리랑의 전승과 계보. 정선아리랑문화재단.

¹¹ 진용선. (2010). 일본 한인 아리랑 연구.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32.

접어들면서 아리랑을 지역 정체성의 핵심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정선아리랑제’는 매년 확대되어 공연과 참여 인원이 증가하였고, 지역 주민과 외부 방문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개방형 축제로 변화했다. 이 과정에서 축제의 프로그램은 단순한 경연 중심에서 벗어나, 교육·체험·전시·학술행사 등으로 다변화되었으며, <정선아리랑>은 지역 축제의 주제이자 문화관광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교육 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정선군과 교육청은 지역 학교의 정규 교과과정 속에 <정선아리랑>을 포함시켜, 초·중·고등학생이 <정선아리랑>의 역사와 가사를 배우고 직접 노래를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교육의 제도화는 전승자 중심의 비공식 전수 체계를 벗어나, 학교, 공공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생활문화형 전승으로의 전환을 가능케 했다. 또한 청소년 공연단, 지역합창단, 생활예술동호회 등이 결성되어, <정선아리랑>은 세대 간을 잇는 소통의 매개로 기능하게 되었다.

연구 영역에서도 아리랑의 학문적 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졌다. 2000년대 초반부터 강원도, 문화재청, 학계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와 심포지엄을 통해 <정선아리랑>의 역사, 음악적 구조, 전승 양식, 사회문화적 의미가 다각도로 분석되었다. <정선아리랑>연구소와 보존회는 <정선아리랑> 관련 논문, 조사보고서, 자료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하며 학문적 축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정선아리랑>이 단순한 민속음악을 넘어, 지역학, 음악학, 문화인류학, 기록학 등 여러 학문이 교차하는 융합 연구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교류의 확대는 <정선아리랑>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정선군은 일본, 중국, 프랑스, 몽골 등지의 문화예술단체와 교류 공연을 이어가며, ‘세계가 함께 부르는 아리랑’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특히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과정은 <정선아리랑>의 국제적 인정과 상징적 위상을 확립한 결정적 사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선아리랑>관련 사진, 문헌, 음반, 공연 영상, 보존회 기록, 언론 보도 등이 대거 제공되었으며, 각종 전시와 미디어 협력이 병행되었다. 정선군과 지역 기관들은 등재 추진을 위해 자료를 수집, 정리, 디지털화하여, 무형유산 보존과 국제 협력의 모범적 모델을 제시했다. 이 사례는 기록의 수집, 보존, 활용이 무형유산의 정책적 실행과 문화외교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2010년대 이후 <정선아리랑>은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상징하는 자산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공연과 교육, 연구와 교류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전승과

창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살아 있는 무형유산’의 이상적 모델을 구현하였다. 이 시기는 <정선아리랑>이 단순히 ‘전송되는 노래’의 차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기억을 담은 문화 자산이자, 국가적·세계적 문화유산으로 확장된 단계였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는 ‘아리랑의 가치가 드러난 시기’이자, 기록의 보존과 활용이 곧 문화유산의 위상 강화와 직결되는 시대라 할 수 있다. <정선아리랑>의 역사는 이제 ‘노래의 전송’에서 ‘기록의 축적’, 그리고 ‘세계적 공유’로 이어지는 새로운 문화생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3. <정선아리랑>·정선아리랑제의 기록: 분류와 현황

<정선아리랑>과 정선아리랑제를 둘러싼 기록은 단순히 한 시대의 흔적을 보관하는 차원을 넘어, 민요의 전송 과정과 문화적 정체성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군이다. 기록은 특정 시공간에서 생성된 기억을 보존하는 동시에, 전송자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역사적 자산을 재구성하는 근거로 작동한다. 특히, <정선아리랑>의 경우, 기록은 전송 실천의 구체적 모습과 더불어 정책, 축제, 교육, 국제교류 등 다양한 차원에서 민요가 어떻게 ‘문화유산화(heritagization)’가 되었는지를 입증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은 단순한 문서나 매체를 넘어, 정선 지역 공동체가 자신들의 문화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재현해왔는가’를 보여주는 문화적 행위의 집합체다.

‘정선아리랑제’의 공문서와 기획서, 축제 홍보물, 포스터, 사진, 공연 대본, 녹음 자료, 영상 기록, 신문 기사 등은 각각의 시기적 맥락 속에서 민요가 행정적 정책, 예술적 실천, 교육적 프로그램, 국제적 교류로 확장되는 과정을 시각화한다. 따라서 <정선아리랑>의 기록은 단지 자료의 축적이 아니라, 노래의 생애사(life history)를 추적하는 근거이자, 지역 공동체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문서와 매체를 통해 스스로 서술한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의 <정선아리랑> 기록은 무형문화유산 제도의 정착과 긴밀히 맞물려 있다. 문화재 지정 공문, 예능보유자 심사기록, 음반 제작 보고서, 축제 운영계획 등은 민요의 예술적 가치가 행정체계 속에서 제도적으로 승인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정선아리랑>이 단순히 구비전승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언어로 재해석된 순간이자, 지역의 문화정체성이 행정문서의 형식으로 ‘기록된 문화’로 변모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정선아리랑>의 기록은 전송과 기억의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축제에서 촬영된 영상은 공연의 순간을 기록하는 동시에, 다음 세대의 학습 자료로 재활용되며, 전수

자 명단과 가사집은 단순한 명부를 넘어 세대 간 전승의 구조를 가시화한다. 이처럼 기록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현재의 전승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기반으로 작동한다. 다시 말해, 기록이 보존을 가능케 하고, 보존이 새로운 기록을 낳는 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한편, 2000년대 이후 디지털화가 본격화되면서 <정선아리랑>의 기록은 아날로그 매체를 넘어 디지털 아카이브 체계로 확장되었다. <정선아리랑>연구소는 문헌, 사진, 영상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축제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무형유산의 장기보존과 대중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 이러한 흐름은 무형유산 기록이 더 이상 보존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연구·교육·정책·문화교류를 매개하는 지식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정선아리랑>의 기록은 전승의 부산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전승의 핵심 구조이다.

기록은 노래의 기억을 보존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무형유산이 세계적 자산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따라서 <정선아리랑>의 기록을 고찰하는 일은, 한 노래의 역사를 되짚는 동시에 기억의 형식이자, 지역문화가 스스로를 보존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3.1. 기록군의 분류와 성격

<정선아리랑> 관련 기록은 그 양과 범위가 방대하며, 내용과 매체의 특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자료의 형식을 구분하기 위한 분류가 아니라, 각 매체가 전승과 기억, 그리고 지역 정체성의 형성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 단계이다.

<정선아리랑>의 기록은 크게 박물관, 디지털 자료, 조사자료, 사진 기록, 문헌 자료, 공공 기록, 음반 자료, 영상 자료, 축제 기록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각각의 범주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민요의 전승이 어떻게 시각적, 청각적, 문헌적 차원에서 축적되어 왔는지를 보여준다.

우선 박물관은 정선아리랑제의 무대나 공연 현장에서 사용된 다양한 물품들을 포함한다. 축제 무대의 소품, 전승자들의 공연 의상, 악기, 기념비, 기념품 등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축제의 현장성과 전승의 생활성을 동시에 반영하는 증거물이다. 예를 들어 정선아리랑제에서 사용된 전통 복식은 공연 예술의 미적 구성요소일 뿐 아니라, 전승자 개인의 삶과 시대적 배경이 녹아 있는 생활사적 자료이기도 하다.

또한 전승자가 실제 연주에 사용했던 장구나 피리는 구술 증언과 함께 분석될 때, 당시 연행 양식과 음향적 특징을 복원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러한 박물관 기록은 민요 전승의 물질적 기반을 보여주는 동시에, 공연 예술의 기억을 실체적으로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디지털 자료는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행사 동영상, 축제 홍보 웹사이트, SNS 게시물, 디지털 사진 등이 이에 포함되며, 이는 아날로그 중심의 기록 환경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반영한다. 특히 SNS에 축제 참가자나 관람객이 올린 사진과 후기들은 ‘공식 기록’과는 다른 시민 참여형 아카이브를 형성한다. 이러한 디지털 기록은 전승의 주체가 전문가나 행정기관을 넘어 일반 시민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며, 현대의 <정선아리랑>이 더 이상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참여와 공유의 문화유산으로 진화했음을 시사한다.

조사 자료는 학자와 연구기관이 현장에서 수집한 구술, 설문, 필사 자료를 포함하며, 전승자의 목소리를 직접 담고 있는 1차 자료로서 가장 높은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구술 기록은 단순히 노래의 가창법을 넘어서, 특정 세대가 살아온 시대적 배경과 정선이라는 공간의 사회사적 맥락을 함께 보여준다. 전승자가 자신의 생애와 노래의 관계를 서술한 인터뷰 자료나 구술록은, 무형유산이 개인의 기억과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술 자료는 후속 연구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전승 체계의 비가시적 층위를 복원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사진 기록은 시각적 차원에서 전승의 현장을 보여주는 대표적 자료이다. 축제의 공연 장면, 전승 교육의 모습, 전수자들의 일상, 해외 교류 행사 등을 담은 사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전승의 분위기와 감정을 시각적으로 재현한다. 특히 필름 사진에서 디지털 사진으로 매체가 전환되면서, 촬영 주체 또한 전문 기록자에서 지역민, 참여자 중심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사진 기록은 ‘누가, 어떤 시선으로 <정선아리랑>을 기억하는가’를 드러내는 사회문화적 텍스트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문헌 자료는 <정선아리랑>의 학술적·정책적 기반을 형성한 핵심 자료군이다. 1955년 정선교육구에서 발간된 『정선민요집: <정선아리랑>』은 최초의 체계적 가사집으로, 지역 민요를 학문적 대상으로 전환시킨 선구적 기록이다. 이외에도 <정선아리랑>을 다룬 연구논문, 학술보고서, 신문 기사 등은 아리랑이 단순히 향토의 노래가 아니라, 문화정책과 지역개발, 교육의 영역에서 논의되는 공공 자산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문헌 기록은 시대별로 축적되며, 학술 연구와 행정 정책 사이의 상호작용을 추적할 수 있게 한다.

공공기록은 무형문화재 지정 관련 문서, 문화재청과 강원도청의 보고서, 정선군의 예산서, 축제 운영계획서 등으로 구성된다. 이 자료들은 <정선아리랑>이 지역의 자발적 전승에서 행정적 관리체제로 편입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공문서 속의 용어와 서식, 행정적 논리는 민요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문화’가 어떻게 정책 언어로 번역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따라서 공공기록은 행정사료이자 동시에 문화사료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음반 자료는 SP, LP, 카세트, CD 등 시대별 음향 매체에 수록된 <정선아리랑>의 변천을 추적할 수 있는 핵심적 기록이다. 1950년대의 단성(單聲) 녹음부터, 1970년대 LP 음반, 1990년대 합창 편곡, 그리고 2000년대 이후의 디지털 음원에 이르기까지, 매체의 변화는 곧 전승 방식의 변화와 직결된다. 음반은 공연 현장의 생생한 음향을 반복 재생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선아리랑>의 확산과 대중적 소비를 촉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는 구비 전통이 현대의 미디어 시스템 속으로 편입된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

영상 자료는 영화, 드라마, 연극, 악극, 뮤지컬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재현된 <정선아리랑>의 시청각적 확장을 보여준다. 특히 1980년대 KBS 드라마 「아리랑별곡」은 <정선아리랑>의 인지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대표적 사례였다.¹² 이 외에도 정선아리랑제 공연 영상, 다큐멘터리, 지역 방송 보도 등은 <정선아리랑>이 지역 축제를 넘어 국가적 문화아이콘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영상 기록은 공연의 형식뿐 아니라 관객의 반응, 공간의 연출, 음향적 특징까지 통합적으로 담고 있어, 민요의 ‘살아 있는 현장’을 복원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와 별도로 축제 기록이라는 독립적 범주도 존재한다. 행사 안내서, 프로그램 북, 리플렛, 포스터, 현수막, 운영 문서, 보도자료 등은 정선아리랑제가 단순한 지역행사에서 제도화된 문화축제로 성장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축제의 홍보와 기록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웹사이트와 SNS를 통한 사이버 기록이 새롭게 축적되고 있다. 이는 전통축제의 실시간 기록화와 대중 참여형 보존이 가능해진 디지털 전환기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 중에서도 “사진 한 장의 가치”로 회자되는 사례는 기록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2008년 9월 2일, 일본 관동국제고교 학생들이 <정선아리랑>을 학습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은 단순한 스냅샷을 넘어, <정선아리랑>이 지역의 경계를 넘어 국제적 교육 자원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증명한 기록이다.¹³ 이 사진은 학습 현장성과 문화 교류의 순간을 동시에 포착

12 정선아리랑의 사연. (1984년 3월 29일). 조선일보, 12면.

하여, 교육적 의미와 현장성이 결합된 대표적 자료로 평가된다. 이처럼 <정선아리랑>의 기록군은 유형과 매체를 막론하고, 전승의 실천과 기억의 보존을 동시에 담아내는 복합적 문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3.2. 핵심 연혁과 기록의 결절점

<정선아리랑>과 정선아리랑제의 전승 과정에는 기록이 집중적으로 생산·축적된 시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시점들은 단순히 연대기적 사건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정선아리랑>이 지역적 민요에서 국가적, 나아가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결절점(nodal moments)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각 시점에서의 기록은 당대의 사회적 조건, 행정 제도, 매체 환경과 긴밀히 맞물려 생산되었으며, 그 자체로 전승의 구조와 아카이브 구축의 방향을 결정짓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무엇보다 1955년 『정선민요집: <정선아리랑>』의 발간은 <정선아리랑> 기록사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정선교육구에서 간행된 이 자료는 지역 교사들과 행정기관이 협력하여 민요 가사를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한 최초의 문헌 기록이었다. 이 가사집은 민요의 원형을 산수, 계절, 인생, 금수, 망향, 근면 등 여섯 개의 주제로 분류함으로써, <정선아리랑>이 단순한 향토 예술이 아닌 교육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자료임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또한 해당 문헌은 구술 전승을 문자화함으로써, 후대 연구자들이 가사의 변이 양상을 추적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정선아리랑>은 지역 공동체 내부에서만 불리던 노래에서, 학문적 분석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로 전환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이후 1971년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 지정은 <정선아리랑>이 제도적 차원에서 공인받는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이와 관련된 지정 공문, 심의 보고서, 보유자 선정 문서 등은 <정선아리랑>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행정 체계 속에서 ‘보존해야 할 문화재’로 자리 잡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증명한다. 특히 해당 문서들은 문화재 관리국의 판단 근거, 지정의 범위, 보호 계획 등을 상세히 담고 있어, <정선아리랑>이 단순한 생활의 산물에서 국가적 보호체계

13 「KBS 9시 뉴스」 2012년 12월 6일. 지난 2012년 12월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7차 유네스코 본부 인류무형유산위원회가 아리랑을 무형유산으로 지정할 당시 일본 관동국제고교 학생들이 2008년 아리랑학교에서 <정선아리랑>을 배우는 사진 등이 유네스코 위원들이 확인하는 모니터와 대형 화면에 공개되었으며, 이러한 장면이 KBS뉴스에도 그대로 보도되었다.

속의 문화유산으로 승격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이다. 이는 기록이 행정의 부산물이 아니라, 제도화의 실질적 증거로 기능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1976년 제1회 정선아리랑제 개최와 관련된 공문 및 취지문은 축제의 기원과 제도적 정당성을 보여주는 결정적 기록물이다. 당시 문화재관리국에 제출된 문서와 축제위원회의 창립 보고서는, 정선아리랑제가 단순한 향토 행사가 아니라, 무형문화재 보존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¹⁴ 이 문서에는 “〈정선아리랑〉을 통한 지역 문화의 진흥”이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곧 축제가 민요의 보존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재현하는 문화정책적 실천이었음을 입증한다. 따라서 이 시점의 기록은 축제가 제도화되는 근거 문서이자, 〈정선아리랑〉이 공동체의 공적 자산으로 승인받는 행정적 증표라 할 수 있다.

이어 1977년 정선 비봉산 ‘〈정선아리랑〉비’ 제막 기록은 민요가 물질적 기념물로 형상화된 사건이었다. 당시의 제막식 사진, 안내문, 제막사 원고, 신문 기사 등은 노래가 조형물로 전환되는 과정을 세밀히 보여준다. 이는 〈정선아리랑〉이 구술적, 청각적 문화유산에서, 기념비적, 시각적 문화기호로 전환되는 상징적 순간이었다. 노래가 돌에 새겨지고, 제막식이 공공행사로 거행됨으로써, 〈정선아리랑〉은 더 이상 사적 전승의 산물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유산’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물질화는 전승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민의 자부심을 강화하는 기념적 장치로 작용하였다.

그 사이 1970~1976년 제작된 LP 음반과 이후의 카세트, CD 자료는 음향 매체를 통한 전승과 확산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자료군이다. 1970년대 초반에 발매된 LP 음반은 현장 가창의 생생한 음성을 고스란히 담아, 정선 지역을 벗어나 전국적 차원으로 노래를 전파하는 데 중요한 매개가 되었다. 특히 음반 제작 보고서와 재발매 목록은 민요의 소비 양상과 미디어 산업의 발전이 전승 과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후 1980~1990년대에 등장한 카세트와 CD는 대중이 일상 속에서 아리랑을 감상할 수 있는 매체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정선아리랑〉이 ‘듣는 문화유산’으로 정착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심의 자료는 〈정선아리랑〉 기록의 국제적 위상을 입증하는 결정적 결절점이다. 당시 제출된 사진, 문헌, 영상, 언론 기사, 축제 기록 등 총 87점에 달하는 자료는 〈정선아리랑〉이 세계 유산으로 공인되는 과정을

14 사단법인 정선아리랑제위원회. (2016). 정선아리랑제 40년사. 13.

실질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이들 자료는 단순히 제출 서류가 아니라, 유네스코 전문가들이 한국의 무형유산 체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 근거로 활용되었으며, <정선아리랑>이 지역적 전승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문화정책의 모범 사례’로 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기록은 문화유산의 본질적 구성요소이자, 문화외교의 수단으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기록의 국제화’가 전승사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평가된다.

이렇듯 <정선아리랑>의 전승사에서 1955년, 1971년, 1976년, 1977년, 1970~76년대 음반 제작기, 2012년 유네스코 등재 등으로 이어지는 결절점들은 각기 다른 시대적 맥락 속에서 기록이 의미 변환을 이끌어낸 순간들이었다. 이는 단순한 자료의 축적이 아니라, <정선아리랑>이 구비 전승에서 제도화, 그리고 세계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기록이 어떻게 문화유산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체성을 재구성하며, 미래 전승의 방향을 규정하는 동력으로 작동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3.3. 기록의 공백과 복원 과제

<정선아리랑>의 기록은 100여 년에 걸친 장구한 전승의 궤적을 보여주지만, 그 축적 과정이 언제나 연속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기록은 시대적, 행정적, 기술적 조건에 따라 생산과 보존의 밀도가 달라졌으며, 그 결과 특정 시기에는 중요한 자료가 유실되거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채 흩어졌다. 이러한 불연속의 구간은 단순한 ‘자료의 부재’가 아니라, 전승사와 지역문화사 속에서 기억의 단절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의미를 지닌다. 즉, <정선아리랑>의 기록사는 ‘생성의 연속’만큼이나 ‘소실의 흔적’ 또한 함께 읽어야 할 불균질한 역사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백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가치 인식의 부족이다. 1950~1970년대까지의 전승 현장에서는 축제나 공연의 순간을 기록하는 행위가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장기적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인식이 부족했다. 당대의 기록은 대부분 단기적인 행정 보고나 홍보 목적에 국한되었고, 후대의 연구나 전승 교육을 염두에 둔 체계적 수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1회부터 5회까지의 정선아리랑제 관련 자료, 초기 음반 제작 기록, 전승자 명단 등 다수의 자료가 산발적으로 흩어졌거나 멸실되었다.¹⁵ 이는 전승의 ‘현장’이 실시간으로 사라지고 있음에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15 진용선. (2025). 정선아리랑·정선아리랑제의 기록과 활용. In 2025 정선아리랑 전승보전 발전 포럼. 정선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는 보관 환경의 미흡이다. <정선아리랑> 관련 음반, 필사본, 사진, 공문서 등은 대부분 종이·자기테이프·인화지 등 물리적 손상에 취약한 매체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보존을 위한 전문적 관리 시스템-예컨대 온·습도 조절, 탈산(脫酸) 처리, 고해상도 복제 및 보존용 포맷 전환-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일부 음반은 자기테이프의 산화로 재생이 불가능해졌고, 필사본은 잉크의 탈색과 종이의 산화로 판독이 어려워졌다. 사진 또한 인화지의 변색과 손상으로 인해 원본 상태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물리적 훼손은 단순한 자료 손실을 넘어, <정선아리랑> 전승의 생생한 ‘증거’를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셋째는 권리 관계의 불비이다. <정선아리랑>의 기록은 수많은 개인, 기관, 예능보유자, 행정 주체의 협업을 통해 생산되었으나, 저작권, 소유권, 인접권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초기 음반과 공연 영상, 축제 포스터 등은 제작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소유권이 개인과 기관 사이에서 중첩되어 있어 활용이 제한되었다. 일부 자료는 저작권 문제로 복제나 공개가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자와 교육기관이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기록의 ‘존재’보다 ‘활용의 제약’이 전승 단절의 더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백을 복원하고 기록의 장기적 안정화를 도모하는 구체적 실천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법적·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선아리랑> 관련 자료의 저작권, 인접권, 소유권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관·전승자·연구자 간 협업을 통해 기록 활용에 대한 동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록의 소유와 이용이 충돌하지 않는 신뢰 기반의 아카이브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디지털 복원 로드맵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훼손된 음반은 고음질 디지털 포맷으로 복원하고, 희귀 문헌과 사진은 고해상도 스캔을 통해 원본의 질감을 최대한 유지하며 보존해야 한다. 디지털 복원은 단순한 복제의 과정이 아니라, 물리적 기록을 장기 접근 가능한 데이터로 전환하는 문화기술적 행위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해외 기관이나 개인 소장처에 흩어져 있는 자료의 귀환(repatriation)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예컨대 1970~80년대 일본 민속연구자나 방송사가 수집한 <정선아리랑> 관련 영상, 음반, 악보 등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이를 협약이나 복제 협력 형태로 국내로

아리랑문화재단·강원일보사.

환원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나아가 국내외에 분산된 아카이브를 가상 통합하는 ‘〈정선아리랑〉 디지털 통합아카이브’ 구축도 중장기적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이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자료를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연결함으로써, 연구자·교육자·시민이 한 플랫폼에서 〈정선아리랑〉의 모든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이다. 이를 위해 OAIS(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 기반의 표준화된 데이터 구조를 적용하고, 국가기록원·문화재청·〈정선아리랑〉보존회 등 기관 간 협력 거버넌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정선아리랑〉과 정선아리랑제의 기록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구조를 지닌다.

매체별 분류 속에서 일정한 체계로 정리되는 한편, 특정 연혁마다 집중적으로 생산·활용되며, 동시에 공백과 단절의 문제를 안고 있다. 기록은 단순히 과거의 흔적을 보존하는 수단이 아니라, 전승을 이어가고 미래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자산이자 지식 인프라이다. 따라서 〈정선아리랑〉 기록의 공백을 복원하고 체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곧 전승의 기반을 다지고 공동체의 문화정체성을 재구성하며, 나아가 세계적 문화유산으로의 확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정선아리랑〉의 기록은 과거의 증거물이 아니라, 미래의 전승을 설계하는 살아 있는 아카이브로 자리 잡아야 한다.

4. <정선아리랑>의 기록물 관리와 아카이빙 구축

〈정선아리랑〉과 정선아리랑제의 기록은 단순히 자료를 모으고 보관하는 차원을 넘어, 그 자체가 무형유산 전승의 토대를 이루는 핵심적 인프라이다. 아리랑의 전승은 노래를 부르는 행위로만 지속되지 않는다. 그 노래를 담은 기록, 그것을 둘러싼 기억, 그리고 기록이 다시 공동체 속에서 활용되는 순환 구조가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 따라서 〈정선아리랑〉의 기록 관리와 아카이빙 구축은 ‘보존’을 넘어 ‘활용’을 지향해야 하며, 이는 곧 문화유산의 현재화(presentification)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기록은 과거의 유산을 현재의 문화 실천으로 되살리고, 미래의 전승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 생태계의 핵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선아리랑〉 기록의 관리 및 아카이빙 구축은 다음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첫째, 수집 기준과 선별, 둘째, 메타데이터 정제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셋째, OAIS 기반 상호운용 모델 설계, 넷째, 디지털 전환과 품질관리 체계 확립이

그것이다. 이 네 가지 과제는 기록의 ‘물리적 보존’에서 ‘디지털 활용’으로, 그리고 ‘개별 자료 관리’에서 ‘지식 기반 전송 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한 단계적 로드맵이라 할 수 있다.

4.1. 수집 기준과 선별

기록 수집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무엇을, 왜, 어떻게 모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된다. 아카이브는 단순히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모으는 창고가 아니라, 가치와 목적이 명확한 지식 체계로 설계되어야 한다.¹⁶ 따라서 <정선아리랑> 아카이브 구축의 첫 단계는 기록의 수집 범위를 설정하고, 수집의 대상과 목적, 그리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모든 기록이 동일한 학술적 가치나 활용 가능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집 단계에서부터 선별 기준이 체계화되어야만 이후의 분류, 보존, 활용 단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 네 가지 원칙으로, 적합성(suitability), 신뢰성(reliability), 연관성(connection), 활용성(usability)을 수립하였다. 이 네 가지 원칙은 기록의 선별·등록·관리·서비스 전 과정에 관통하는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며,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체크리스트화된 관리 도구로 정착되어야 한다.¹⁷

첫째, 적합성(suitability)은 기록이 <정선아리랑> 아카이브의 목적과 주제 범위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수집의 1차 대상은 <정선아리랑> 및 정선아리랑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이며, 예컨대 가창자 인터뷰, 축제 운영 문서, 공연 대본, 음반, 영상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반면에, 주변 지역의 민요나 아리랑 관련 일반 자료는 맥락적 가치가 입증될 때 보조 자료로 수집한다. 이는 무분별한 자료 축적을 방지하고, 아카이브의 정체성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둘째, 신뢰성(reliability)은 기록의 진본성(authenticity)과 출처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모든 기록은 생산 주체, 제작 시점, 장소, 이용 이력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 증거(추가 확인서, 관련 문서, 구술 증언 등)를 통해 신뢰성을 보강해야 한다. 특히 1970~80년대에 생산된 음반, 사진, 공문 등은 제작자와 발행처가

16 기록물의 수집, 분류와 정리, 분류 체계에 대해서는 이해영의 단행본 참조. 이해영. (2020). 기록의 분류·기술과 검색도구. 도서출판 선인.

17 진용선. (2025). 정선아리랑·정선아리랑제의 기록과 활용. In 2025 정선아리랑 전송보존 발전 포럼. 정선아리랑문화재단·강원일보사.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뢰성 확보는 아카이브의 학문적 신뢰도와 직결된다.

셋째, 연관성(connection)은 기록이 아카이브의 다른 자료, 연구 주제, 축제 운영, 교육 활용 등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원칙이다. 예컨대, 축제 포스터 한 장이라도 특정 연도의 프로그램 구성이나 행사 주제와 연관되어 있다면, 이는 전승사적 맥락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므로 높은 수집 가치를 지닌다. 또한 공공기록과 개인기록의 연계를 통해 하나의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다층적 해석이 가능해지는 구조적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활용성(usability)은 수집된 기록이 단순히 보관에 머물지 않고, 연구·전시·교육·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형태로 재가공·재활용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정선아리랑> 기록은 지역민과 연구자, 교육기관, 예술인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되고 활용될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활용성이 높은 자료는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축제 현장의 인터뷰 영상은 향후 구술사 교육 자료로, 전시용 포스터는 지역 홍보 콘텐츠로 재가공될 수 있다.

이 네 가지 기준은 단순히 이론적 지침이 아니라, 기록의 전 생애주기(lifecycle)인 수집, 등록, 관리, 서비스에 걸쳐 적용되는 실천적 도구로 기능한다. 각 단계별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수집 단계에서는 “적합성과 신뢰성”을, 관리 단계에서는 “연관성과 활용성”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아카이브 전체가 목적 지향적·활용 지향적 체계로 운영될 수 있다.

결국 기록 수집은 무계획적 축적이 아니라, 전략적 수집(Strategic Acquisition)의 과정이어야 한다. <정선아리랑> 아카이브가 살아 있는 지식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료 하나하나가 어떠한 의미와 목적 속에서 수집되었는지를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아카이브는 과거의 산물을 보존하는 공간을 넘어,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속가능한 문화 기억의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4.2. 메타데이터 정제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집된 자료는 단순히 모으는 행위로 그 의미가 완결되지 않는다. 기록이 진정한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각 자료의 맥락, 속성, 연결 관계를 세밀히 규정하고, 표준화된 메타데이터(metadata)¹⁸로 구조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데이터의 목록

18 정보를 지적으로 통제하고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 유형을 정리한 2차적인 정보를

을 만드는 기술적 절차가 아니라, <정선아리랑>의 전승사와 문화적 맥락을 이해 가능한 지식 체계로 전환하는 핵심 단계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메타데이터 정제는 기록을 “보관 가능한 대상”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바꾸는 인문정보학적 실천이다.

<정선아리랑> 아카이브의 경우, 축제 관련 문헌과 사진, 공연 음원과 영상, 행정 문서, 지역 구술 기록 등 다양한 매체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자료의 탐색이나 활용이 어렵다. 따라서 기록의 유형별로 표준 필드를 설정하고, 동일한 규칙에 따라 정보를 기술해야 한다.

음반 자료를 예로 들면, SP, LP, 카세트, CD 등 매체별 속성은 각각의 시대적 특징과 제작 기술을 반영하므로, 이를 규격(format), 라벨(label), 발매사(publisher), 녹음일(recording date), 관계자(contributors), 제작 목적(purpose) 등의 필드로 구체화해야 한다. 이와 같은 표준화 작업은 단순한 목록 정리를 넘어, 기록의 맥락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정보 구조를 형성한다. 예컨대, 1953년 미국 Rainbow Records에서 발매된 Elli Williams, Arirang (Ah-Dee-Dong) SP 음반(R-4192)은 표면적으로는 해외에서 제작된 ‘아리랑 음반’이지만, 그 안에는 본조 아리랑과의 원곡 관계(original connection), 이를 재해석한 “Ah-Dee-Dong Blues”와의 파생 관계(derivative relation), 또한 데모판인지 정식 발매본인지를 구분하는 배포 형태(distribution type) 등 복합적 맥락이 내포되어 있다.¹⁹ 따라서 메타데이터 작성 시 단순히 “1953년 발매된 외국 아리랑 음반”이라는 사실만 기록하는 것은 불충분하며, 이 음반이 한민족 음악이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화사적 의미를 지니는지를 드러내야 한다. 이처럼 세밀한 기술을 통해 메타데이터는 단순한 데이터 집합이 아니라, 연구자와 이용자가 기록의 의미망(semantic network)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문화 정보 구조로 기능한다.

<정선아리랑> 아카이브의 발전 과정은 이미 메타데이터 구축의 중요성을 증명해왔다. 2008년 초기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정선군 차원에서 축제 운영 문서와 사진, 기사 기록을 정리한 1차적 단계였다. 이후 2009년 ‘아리랑아카이브’ 설립은 정선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아리랑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적 수준의 정보 플랫폼으로 확장되었다. 이 시기부터 <정선아리랑>의 문헌·음반·영상 자료가 하나의 통합 검색 체계 안에 편입되면서, 지역

말한다. 사물을 표현하는 특성의 정보 유형이 메타데이터(metadata)이며, 데이터의 유형을 정한 데이터라는 의미에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한국기록학회(편).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역사비평사.

19 진용선. (2020). 하와이 멕시코 쿠바 아리랑 연구. 아리랑아카이브.

단위 아카이브가 국가 단위의 문화유산 데이터망과 연결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나아가 2021년에는 밀양아리랑아카이브가 추가로 구축되면서, 정선, 밀양 등 지역 간 협력과 자료 교환이 가능한 분산형 네트워크형 DB 시스템(distributed database system)이 구현되었다. 이러한 선례들은 기록 관리가 한 번의 정리로 끝나는 정적 작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확장을 필요로 하는 동적 생명체적 체계(living system)임을 보여준다.

메타데이터의 정제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결국 <정선아리랑> 아카이브를 단순한 ‘기록 저장소’에서 지식 생산의 기반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과정이다. 기록의 검색, 열람, 공유 기능은 물론,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온라인 전시, 교육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활용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표준 메타데이터 체계(예: KRM, KMDB)와 국제 표준(예: Dublin Core, ISO 15836)을 동시에 참조하여, 국내외 기관과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아카이브는 고정된 수장고(storage)가 아니라, 새로운 정보가 계속 입력되고 연결되며 재해석되는 살아 있는 지식 인프라(living knowledge infrastructure)로 기능해야 한다. 즉, 데이터베이스는 단순히 자료를 저장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연구자, 전승자, 일반 시민이 참여하고, 기록을 재활용하고, 새로운 해석을 덧붙일 수 있는 열린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럴 때 <정선아리랑> 아카이브는 더 이상 ‘과거의 기록’을 보존하는 공간이 아니라, 현재의 연구와 미래의 전승을 이어주는 문화적 생태계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4.3. OAIS 기반 상호 운용 및 아카이브 모델

<정선아리랑>의 기록 아카이브는 한 기관의 독립적인 구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양한 기관과 지역, 그리고 연구자들이 각각의 목적과 방식으로 자료를 축적해 왔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복합적 구조가 요구된다. 따라서 <정선아리랑> 아카이브는 독립형(Independent)과 관계형(Cooperating) 모델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독립형 아카이브는 특정 기관이나 지역이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 보존, 서비스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는 정선이라는 지역적 맥락과 현장성을 반영하는 데 강점을 가지며, 정체성 확립과 기록의 집중 관리에 유리하다. 그러나 접근성이 제한되고 외부 기관과의 연계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관계형 아카이브는 서로 다른 기관과 지역이 공동 검색 시스템이나 공유 API를

통해 자료를 상호 연동하는 방식이다. 이 구조는 이용자에게 보다 폭넓은 접근성을 제공하고, 분산된 자료를 가상적으로 통합함으로써 기록의 활용도를 높인다. 이러한 두 모델을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OAIS(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 참조 모형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 설계가 필요하다.²⁰

OAIS는 기록을 제출(Submission), 보존(Archival), 서비스(Dissemination)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국제 표준이다. 이를 <정선아리랑> 아카이브에 적용하면, 수집 단계에서 생산된 자료를 제출 정보 패키지(SIP)로 구성하고, 장기 보존을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더해 보존 패키지(AIP)로 유지하며, 이후 연구자와 대중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패키지(DIP)로 전환하는 순환적 구조를 갖추게 된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정선아리랑> 아카이브는 단순한 기록 보관소가 아니라, 수집과 보존, 활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속 가능한 전승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되며, 지역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도 국가적·국제적 문화유산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4.4. 디지털 전환과 품질관리

현대의 아카이브는 디지털 전환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 <정선아리랑> 아카이브 또한 축적된 자료의 물리적 보존을 넘어, 이를 디지털화하고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스캔이나 변환 작업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기록을 활용 가능한 형태로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인프라 구축 과정이다.

문헌과 사진은 고해상도의 TIFF 형식으로, 음원은 무손실 WAV 포맷으로 변환하여 마스터 파일로 보존하고, 이와 별도로 서비스용 파생본(JPEG, MP3 등)을 제작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중 구조는 원본의 보존성과 서비스의 효율성을 동시에 보장한다.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체크섬 검사를 실시하여 파일 손상 여부를 점검하고, 기술 발전에 맞춰 포맷과 저장 매체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특히 장기 보존을 위해 온라인으로 즉시 접근 가능한 온스토리지와, 장기 저장을 위한 콜드스토리지를 병행 운영하

20 OAIS 참조 모형을 기반으로 한 관계형 아카이브의 개념과 환경 주체, 플랫폼의 개념 등에 대해서는 이연창 학위논문을 참조. 이연창. (2022). 관계형 아카이브 플랫폼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학과 전문대학원).

는 다층적 저장 구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디지털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자료에는 저작권, 인접권, 이용허락 조건 등 권리 관련 메타데이터를 명확히 기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록물의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윤리적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 이러한 품질관리 체계는 단지 기술적 보존을 위한 장치에 그치지 않고, <정선아리랑> 기록의 장기적 활용 가능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것을 지역과 국가의 공공 문화자산으로 전환시키는 토대가 된다. 즉, 디지털 전환은 아카이브의 생명력을 연장하는 기술적 수단이자, 무형문화유산의 지속 가능한 공유와 확산을 위한 문화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5. 기록물의 활용: 서비스·전시·교육·연구·공유

<정선아리랑> 아카이브의 존재 이유는 단순히 귀중한 자료를 보존하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축적된 기록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적 의미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기록은 특정 기관의 소유물이 아니라, 연구자와 지역민, 예술가, 학생, 그리고 국제사회가 함께 공유하고 재해석해야 할 공공 자원이다. <정선아리랑> 아카이브의 활용은 크게 서비스, 전시, 연구, 온라인 콘텐츠, 그리고 지혜 공유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

무엇보다 아카이브는 단순한 저장소가 아니라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플랫폼으로 작동해야 한다. <정선아리랑> 아카이브는 음원과 영상 스트리밍, 메타데이터 기반의 검색 기능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에게는 학문적 분석의 기반을, 교육자에게는 수업 자료를, 창작자에게는 예술적 영감을 제공하며, 일반 대중에게는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와도 콘텐츠를 공유하여, 아리랑이 단지 한국의 노래에 머무르지 않고 ‘연구-창작-교육-교류’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전시의 장으로서 아카이브는 기록의 새로운 맥락을 제시한다. 전시는 단순히 자료를 나열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서사와 기억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2016년 전시 「아디동블루스」와 「아리랑, 아날로그의 매혹」은 희귀 음반을 공개함으로써 아리랑의 세계적 변용과 대중음악사 속 위치를 보여주었다. 같은 해 열린 「아리랑축제-기억과 기록」 전시는 축제 40년의 역사를 총람하며, 기록이 곧 지역의 역사임

을 입증했다. 이어 2018~2019년의 「아리랑로드」, 「아리랑 고개 너머」 전시는 문헌, 음반, 생활사 자료를 주제별로 큐레이션하여 기록의 다층적 해석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뗏목타고 아리랑 아라리요」 전시는 강과 운송이라는 소재를 통해 근대 업서와 문헌을 새로운 문화사적 맥락으로 재조명하였다.²¹ 2019년 밀양 상설전시관의 「아리랑 유행하다」는 지역 간 교차 전시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아카이브가 지역 경계를 넘어 문화적 대화를 확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²² 이러한 전시는 기록이 담론과 경험을 연결하는 핵심 수단이며, 전시 도록과 연구 자료는 다시금 2차 지식 생산의 기반으로 환원된다.

세 번째로, 아카이브는 학문 연구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해야 한다. 문헌, 음반, 사진, 가사 등 유형과 무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정리하면, 음악학, 민속학, 지역학, 공연학, 디지털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이 교차하는 융합 연구의 장이 열린다. 예를 들어, 특정 음반의 발매 배경을 당시의 축제 운영 문서나 보도 자료와 연계하면, 민요 전승과 대중문화 소비의 관계망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정선아리랑〉을 단순한 향토 민요가 아닌, 한국 근현대 문화의 변동을 추적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텍스트로 재정의하는데 기여한다.

네 번째로, 온라인 콘텐츠 제작은 아카이브의 대중적 확산을 실현하는 중요한 활용 방식이다.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정선아리랑〉 관련 사진 70여 점과 국립민속박물관과의 전시 협력 자료 887점이 디지털 콘텐츠로 제공된 것은 그 대표적 사례다. 이는 아카이브-정책-언론-국제기구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작동한 성공적 모델로 평가된다. 향후에도 〈정선아리랑〉 아카이브는 온라인 전시, 인터랙티브 지도, 영상 다큐멘터리, VR 기반 공연 기록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확장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내외 이용자들이 시공간을 초월해 〈정선아리랑〉의 역사와 예술성을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록은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지혜의 공유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2013~2014년 아카이브 구축 포럼과 국내외 전시 협력은 기록을 둘러싼 공론장을 형성했고, 2017~2019년의 교육 프로그램인 ‘아리랑로드’와 러시아 연해주 현지 답사 아카이빙 실습은

21 진용선. (2020). 아리랑 아카이브: 즐거운 재현과 두려운 개입. In 강원지역 아카이브 구축 현황과 과제 (제1회 강원학 아카이브 워크숍, pp.38-47). 강원연구원 강원학센터.

22 진용선. (2022). 대표목록 등재 10주년, 아리랑의 경험과 전망. In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등재 이후 활동과 향후 과제(유네스코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인식 제고 워크숍, pp.38-47).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아카이브를 살아있는 교육 실천의 장으로 확장시켰다. 2020~2024년에는 개인아카이브 모듈과 클러스터 연구를 통해 커뮤니티 주도의 아카이빙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이는 기록이 더 이상 기관에 의해 수동적으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라, 지역민과 전승자가 스스로 참여해 만들어가는 공공 문화자산임을 보여주는 변화다.

결국 <정선아리랑> 아카이브의 활용은 보존과 전시, 연구와 교육, 공유와 확산을 포괄하는 순환적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 기록은 과거의 흔적을 보존하는 동시에 현재의 문화적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며, 이를 통해 <정선아리랑>은 전통의 유산을 넘어, 지역과 세계를 잇는 ‘살아 있는 문화 네트워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6. 마무리와 정책 과제

<정선아리랑>은 ‘노래-축제-기록-아카이브-활용’으로 이어지는 유기적 순환 구조 속에서 지역 공동체의 기억을 보존하고 세계적 가시성을 확보해왔다. 그러나 이 성과가 일시적인 성취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전승 체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층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정선아리랑> 아카이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총체적 기록의 복원, 표준화된 관리 체계 구축, 장기 보존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거버넌스 확립, 권리와 윤리의 정비, 공동체 중심의 참여 확대, 국제 협력 강화, 그리고 생성형 AI 시대에 대응하는 데이터 관리로 요약될 수 있다.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는 총체적 수집과 공백 복원이다. 지금까지의 기록 축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자료가 개인 혹은 기관 단위로 흩어져 있으며, 일부는 이미 훼손되었거나 소실 위험에 놓여 있다. 따라서 개인 소장품과 기관 보유 자료를 공동 조사하여 목록화하고, 분산된 컬렉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상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잔존 음반, 초기 운영 문서, 축제 홍보물, 공연 사진 등은 <정선아리랑> 전승의 실증적 기반이므로 이를 복원·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이 병행될 때 아카이브는 비로소 총체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단절된 기록의 맥락을 복원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준화와 상호운용의 확립은 아카이브 구축의 핵심 조건이다. 수집된 자료는 Dublin Core, PREMIS, METS 등 국제적으로 검증된 메타데이터 체계를 결합해 기술해야 하며, 각 기록의 기술적 속성뿐 아니라 역사적 맥락과 권리 정보를 명확히 서술해야 한다. 또한 “As-Open-As-Possible”(가능한 한 개방적으로) 원칙을 적용하여 자료 접근성을 높

이되, 민감하거나 공동체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 자료는 예외적으로 보호하는 균형적 관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오픈 API 기반의 공동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면, <정선아리랑> 기록은 지역을 넘어 학문과 교육, 문화산업의 국제적 활용 자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

장기 보존 거버넌스의 제도화 역시 시급한 과제다. 모든 기록은 무손실 마스터 파일을 원칙으로 제작하고, 이중 저장(온스토리지·콜드스토리지)을 통해 안정적인 보존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주기적인 무결성 검사를 통해 데이터 손상을 방지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포맷과 저장 매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마이그레이션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록은 단순한 아날로그 유물이 아닌, 미래 세대에게 전송 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기능하게 된다.

또한 권리와 윤리, 출처성 관리 체계의 정비도 필수적이다. 저작권, 인접권, 초상권 등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구분하고, 기록의 수집·활용 과정에서 전송자와 공동체의 동의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특히 구술, 인터뷰, 개인 영상 등 민감한 자료는 공개 등급을 구분해 관리하고, 교육 및 연구 목적에 한정하여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단순한 법적 조치가 아니라, 기록을 공동체의 문화적 신뢰 위에서 운영하기 위한 윤리적 기반이다.

무형문화유산의 전송은 제도만으로 지속될 수 없다. 커뮤니티의 참여와 교육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전송자, 청소년,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큐레이터 프로그램이나 “1가족 1아리랑 기록” 캠페인은 생활 속에서 새로운 기록을 발굴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 학교와 박물관, 축제가 협력하여 아카이브를 교육과정 속에 포함시킨다면, 기록은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수단을 넘어 미래 세대의 문화 감수성을 형성하는 교육 자원이 될 것이다.

<정선아리랑>이 세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과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해외 기관과의 교차 전시, 공동 데이터베이스 운영, 다국어 메타데이터 제공 등은 글로벌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전략이다. 더불어 해외로 반출되었거나 개인 소장 중인 귀중 자료의 귀환(repatriation)을 위한 외교적, 행정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선아리랑>은 세계 무형유산 네트워크 속에서 한국 문화유산의 대표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 시대의 기록 관리와 활용 체계 확립은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이다. <정선아리랑> 아카이브는 AI가 합법적 데이터 학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저작권과 출처를 명확히 추적할 수 있는 인증 체계를 병행해야 한다. 또한 AI가 생성한 2차 콘텐츠에는 “AI-derived”라는 메타데이터를 부착하여 진본성과 변형분을 구분하고, 딥페이크 방지

를 위한 디지털 워터마크를 도입함으로써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AI 기술을 활용해 음성 복원, 가사 자동 분석, 인터랙티브 전시 등 새로운 연구와 교육·콘텐츠 제작의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

결국 <정선아리랑> 아카이브는 과거의 기록을 보관하는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전승, 연구, 교육, 관광, 산업이 교차하는 살아 있는 지식 인프라로 발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표준화와 상호운용, 장기보존 거버넌스, 권리 및 윤리 체계, 커뮤니티 참여, 국제 협력, AI 시대의 데이터 관리 전략은 모두 <정선아리랑>이 지역적 유산을 넘어 글로벌 차원의 실천으로 확장될 수 있는 구체적 토대를 제시한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정선아리랑>은 단지 과거의 민요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잇는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거듭날 것이다.

[References]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6). Comprehensive report on the transmission of Arirang.
- Gang, D. H. (1993). A study on Jeongseon Arari. Jipmundang.
- Gang, D. H. (1995). A comparative study of Eorang Taryeong and Arari. Korean Folk Song Studies.
- Gang, D. H. (1999). A quantitative approach to the narrative structure and affective tendencies of Arari singers. Korean Folk Song Studies.
- Gang, D. H. (2004). A comparative study of narrative sijo and woven Arari. Korean Folklore Studies, Korean Society for Folk Song Studies.
- Gang, D. H. (2008). The folk-song ecology and cultural meaning of Jeongseon Arari. Korean Folk Song Studies, Korean Society for Folk Song Studies.
- Jeongseon. (1954). Jeongseon folk song collection: Jeongseon Arirang.
- Jeongseon. (1986). Ten-year history of the Jeongseon Arirang Festival.
- Jeongseon. (1997–2010). Arari People (Nos. 1–166).
- Jeongseon. (2007). Report on the transmission of Jeongseon Arirang.
- Jeongseon. (2008). Jeongseon Arirang database collection.
- Jeongseon. (2008).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Jeongseon Arirang.
- Jeongseon (2016). Forty-year history of the Jeongseon Arirang Festival.
- Jin, Y. S. (2004). Jeongseon Arirang. Jipmundang.
- Jin, Y. S. (2005). Internationalization patterns and exchanges of Jeongseon Arirang. In Globalization of Jeongseon Arirang: Tasks and Prospects. Minsokwon.
- Jin, Y. S. (2009). Jeongseon Arirang: The lives of singers and Arirang. Jeongseon County.
- Jin, Y. S. (2010). A study on Arirang among Koreans in Japan. Jeongseon Arirang Foundation.
- Jin, Y. S. (2011). Transmission and genealogy of Jeongseon Arirang. Jeongseon Arirang Foundation.
- Jin, Y. S. (2020). A study of Arirang in Hawaii, Mexico, and Cuba. Arirang Archive.
- Jin, Y. S. (2020). Arirang archives: Joyful reenactment and fearful intervention. Workshop on the Status and Tasks of Building Archives in Gangwon Region. Gangwon Research Institute.
- Jin, Y. S. (2022). Ten years after UNESCO inscription: Experiences and prospects of Arirang. UNESCO ICHCAP Workshop on Activities after the 2003 Convention.
- Jin, Y. S. (2025). Records and utilization of Jeongseon Arirang and the Jeongseon Arirang Festival (Presentation). Jeongseon Arirang Foundation & Kangwon Ilbo.
- Jin, Y. S. (Ed.). (2011). Reading Jeongseon Arirang through photographs. Jeongseon Arirang Foundation.

- Kim, Y. U., et al. (2009). A study report on the standard score of Jeongseon Arirang. Jeongseon Arirang Foundation.
-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2008). Dictionary of archival terminology. History Criticism Press.
- Lee, H. Y. (2020). Classification, description, and finding aids of records. Seonin.
- Lee, Y. C. (2022). A study on relational archival platforms (Doctoral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Archival Studies.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2009). 2008 report on the status of Arirang.
- Yeon, G. H. (1968). Jeongseon Arirang. Munhwa Inswaesa.

<정선아리랑>과 정선아리랑제의 기록과 활용: 아카이빙 기반의 지속가능 전승 모델 연구

진용선(제1저자)

정선아리랑연구소 소장

유춘동(교신저자)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한국어 요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선아리랑과 ‘정선아리랑제’가 약 100여 년에 걸쳐 형성·확산·제도화되는 과정을 ‘기록·아카이빙·활용’이라는 단계적 발전 구조 속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일제강점기 이후 전개된 문헌 기록, 지역 축제의 제도화 과정, 무형문화재 정책, 지역 공동체의 전승 활동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정선아리랑이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 기록 축적과 제도적 지원, 공동체 실천이 상호작용하며 전승되는 복합적 문화유산임을 밝히고, 지속 가능한 계승을 위한 아카이브 기반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연대기적·기록학적 접근을 결합하여 정선아리랑 관련 자료의 변천과 축적 양상을 분석하였다. 먼저 문헌, 음반, 영상, 사진, 공공기록, 디지털자료 등 다양한 기록군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매체의 생산·수집·보존 맥락을 검토하였다. 이어 데이터 선별 기준 설정, 메타데이터 정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을 정리하고, OAIS 참조모형을 기반으로 한 상호연용성 구조를 설계하였다. 아울러 독립형·관계형 아카이브 모델을 제시하고, 실제 축제 자료, 서비스 사례, 온라인 콘텐츠 등 활용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론 연구 결과, 정선아리랑의 지속 가능한 전승은 네 가지 핵심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첫째, 전승의 기반이 되는 기록의 총체적 확보와 체계적 수집이 필수적이다. 둘째, 메타데이터 표준화와 OAIS 기반의 전문적 아카이빙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지역 공동체의 참여와 실천이 전승의 실질적 동력으로 작용한다. 넷째, 국제협력과 개방형 지식 공유를 통해 글로벌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확장할 수 있다. 또한 생성형 AI 시대에는 저작권 보호, 출처 검증, 장기보존 정책 마련이 새로운 과제로 제기됨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정선아리랑, 기록유산, 아카이브, 무형문화재, 지역문화전승, OAIS 모델

이 논문은 2025년 11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5년 11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5년 12월 15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